

『신여성』의 독자와 여성 문체 연구*

박승희**

|| 차례 ||

1. 근대 초기 여성 독자와 문체
2. 『신여성』의 독자와 문체
 - 1) 고백체와 ‘감상성’의 정체
 - 2) 언문일치와 여성 독자
3. 결론

【국문초록】

근대적 독자는 책의 수용자란 일차적 의미를 넘어 대중(mass)이자 공중(public)으로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 근대의 한 주체이다. 특히 근대 초기, 『신여성』지의 여성 독자들은 근대적 매체의 등장과 함께 근대적 글쓰기의 주체로 성장한 여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근대 글쓰기란 제도적 영역의 외부에서 근대적 일상을 자기 고백과 구어체 등을 통해 매우 독특한 글쓰기를 실현한 주체들이다. 특히 여성들의 자기고백체는 남성 중심의 공적 글쓰기 영역에서 주변적 존재 혹은 소외된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의 자기 표현과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적 글쓰기 영역의 외부에 있었던 근대 여성 독자들의 언어 미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독자들의 일상적 구어 문체는 발화 주체의 구체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근대적 언문일치의 음성적 실체를 확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언문일치는 외부의 제도적 강제나 언어적 권력 이전에 실현된 여성 독자들만의 언어 미학적 행위였던 것이다.

주제어 : 『신여성』, 여성 독자, 여성 문체, 공적 글쓰기, 직접적 의사소통, 서간체

* 이 연구는 2008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근대 초기 여성 독자와 문체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시작으로 1898년 『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으로 이어지는 근대적 대중일간지의 등장은 근대적 담론 생산과 함께 근대적 글쓰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특히 근대 담론의 생산과 표현을 주도하는 당대 지식인들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글쓰기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매체의 가치는 남다르다. 또한 근대적 매체들은 근대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중들이 근대 지식을 수용하는 대상자 이면서 나아가 발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대중에서 근대적 독자, 나아가 근대적 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적 독자는 책의 수용자란 일차적 의미를 넘어 대중(mass)이자 공중(public)으로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 근대의 한 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적 독자는 ‘책을 읽고 그것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회적 실체’로서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가진 개인이자 이데올로기에 호명되는 집합적 주체가 되기도 한다.¹⁾

장바닥이나 동네 사랑방에서 구연(口演)되는 이야기를 듣는 ‘음독(音讀)’의 역사로부터 필자본 소설을 읽는 독자,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주로 방각본과 구활자본(딱지본) 고전소설 및 신소설의 독자, 그리고 신문 연재소설이나 대중소설을 읽는 대중 독자에 이르기까지 매체와 향유 방식, 독서 대상에 따라 독자층은 진화해왔다.²⁾ 실제로 근대의 독서 공간은

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46.

2) 천정환은 1920~30년대 소설 독자층을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 독자’, ‘엘리트적 독자층’ 등으로 책의 표기법과 내용, 발표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독자’와 ‘근대적 독자’를 매체변화와 함께 읽기에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수동적 읽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독자와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능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주체로서의 근대 독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53. 참조.

근대 독자와 전통적인 독자층이 혼재하고 충돌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수동적인 전통적 독자층과 달리 근대적 독자는 적극적인 독서를 통해 근대적인 발화 주체로 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대적 독서는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면서 독서의 재구성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발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바로 근대적 독자들의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즉 ‘읽으면서 쓰는’ 주체로서의 근대적 독자가 탄생한 것이다.

근대적 독자는 시기별 혹은 매체별로 경우를 달리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학생과 전래 양반 및 개화 지식인, 그리고 신여성 등이 주류를 이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경우가 바로 신여성이었다. 신여성은 전통적 여성 독자인 부유층 부녀자들과는 구분되는 완전히 새로운 여성들이었다. 전통적인 독자층에서 여성 독자는 “특별한 富豪 가정에서 편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반 가정부녀는 책 읽을 틈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독서가 가능한 일부의 부녀자들이었다. 신여성은 신문명의 세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여성들로 실제로 근대적 독서를 통해 신문명을 호흡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1910년대 이후 20년대 초까지 여성 독자는 극소수의 신여성과 여자 유학생 등으로 전이·확장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읽고 쓰는 여성의 존재는 그 수의 차원을 넘어서 당대의 문제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당대의 여성 독자는 여전히 ‘센치멘탈한 기분이나는 연애소설이나 감상문가튼것에 눈을 붓치’는 ‘메란코리크’한 여성들로 미숙한 문학소녀에서부터 ‘근대 여권론’ 등 근대의 공적 담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었다.³⁾ 이는 조선 후기 내방가사나 전통적인 고전소설의 여성 독자층이 재편되면서 근대적 의식

3) 김민숙, 『신여성과 독자』, 『겨레어문학』 34집, 겨레어문학회, 2005, pp.263~264.

과 경험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독자층을 포함하는 근대 여성 독자층의 분화와 중층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여성들이었다. 독서 능력과 문화의 차이, 독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의사소통 장(場) 등의 구분에 따라 나타난 분화와 중층화 과정에 당대 여성들의 독특한 목소리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근대적 여성 독자의 매체 수용태도와 발화양상의 독특함 등은 근대 담론의 소통과 수용 방식 등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지인 『신여성』은 여성 독자층의 투고 형식을 통해 당대 여성 독자층의 다양한 발화 양상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주요 매체였다. 일상에서 벌어진 사소한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독서 감상문, 르포르쥬 수필, 향의의 글, 앙케이트 수필, 사회고발, 논설류 등의 형식 속에는 당대 여성 독자층의 매체 인식과 수용방식, 발화 태도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다. 특히 독자층의 직접적 언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독자란은 그 고백체 발화 방식을 통하여 당대 여성 독자층의 내면 풍경과 이데올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들의 읽고 쓰는 행위가 개화나 근대의 표상으로 평가되면서도 실제로는 글쓰기의 경계 속에 내재된 여성에 대한 젠더적 규범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신여성』등을 통해 제시되었던 여성 독자층의 다양한 발화 속에는 당대 여성들의 자기인식과 함께 사회적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조하면 여성의 ‘읽고 쓰는’ 근대적 독서 과정 속에는 여전히 성차에 의한 구별이 존재했으며, 근대적 지식을 통한 국민화의 주체로 등장시키려는 사회적 통제 메카니즘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메카니즘에 대응하는 자기 표현과 저항의 언어가 여성의 발화 속에는 내재되어 있었다고 것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 글쓰기가 여성들의 근대적 주체화의 주요 전략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 글쓰기의 진술 방식은 이전의 공적 언술, 즉 남성적 글쓰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자기 생애에 의미

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기와 맥락, 표현 방식과 말하는 내용. 전달 방식 및 효과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⁴⁾ 서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과 끝을 올리는 인터네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정말’, ‘대단히’와 같은 강조 부사를 많이 사용하는 일 등과 같은 여성들의 독특한 언술 방식은 공식적인 언술로는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었다.⁵⁾ 우리의 경우에도 일기나 편지와 같은 자기 고백적인 글쓰기 형식은 전통적인 여성적 글쓰기로서 공적인 글쓰기 진술 방식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근대적인 여성 글쓰기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자질로 간주되어 오던 것들을 글쓰기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남근중심적 상징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 글쓰기의 전략⁶⁾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성들의 다양한 진술 방식들을 전면화함으로써 기존의 공적인 남성적 언술 방식을 균열시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독자들의 글쓰기 표현 방식은 문체(style), 특히 일인칭의 자기 고백적인 형식이나 문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고백은 근대문학 형성과 관련하여 근대적 개인의 생활과 내밀한 경험 등을 드러내는 주요한 형식이자 수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근대문학은 고백의 형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⁷⁾는 고진의 선언은 일본 근대문학만을 지칭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고진은 고백을 ‘자기반성’의 고전적 의미를 넘어 “왜곡된 또 하나의 권력 의지”로서 “나약해 보이는 몸짓 속에서 주체로서 존재할 것”을 목표로 하는 언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⁸⁾ 그러므로 고진의 논리에 기초한다면, 여성의 고백적 글쓰기는 근대적 여성

4)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하나의문화, 1992, p.119. 참조

5) 테보라 카메론, 이기우 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1995, p.61.

6) 이봉지, 『엘렌 식수와 여성적 글쓰기』, 『세계의 문학』, 1999, 겨울호, p.243.

7)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1, p.103.

8) 위의 책, p.116. 참조

의 주체적 표현으로서 그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여성들의 읽기와 쓰기를 ‘과도한 감상성’이나 ‘문학소녀’적 취미쯤으로 이해했던 당대의 인식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즉 자기 고백적 글쓰기는 역설적으로 고백이란 내적 방식을 통해 젠더라는 불가시적인 억압적 기제를 넘어서는 독특한 자기 표현의 하나였던 것이다.

한편 언문일치에 대한 보편적 요구가 근대적 글쓰기의 내적 논리로 작용하던 시기, 『신여성』등에서 보여준 여성 독자들의 자기 고백적 서간체 등에 주로 나타나는 독특한 ‘구어 재현’은 언문일치의 언어 제도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성 주체적 글쓰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각별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근대 문학으로 전이·발전하기 이전, 여성 매체에 나타난 여성 독자들의 문체들은 당대 신여성들의 타자성을 확인하는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여성』은 이전의 여성 잡지인 『가명잡지』(1906), 『녀자지남』(1908), 『여자계』(1917), 『신여자』(1920)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많은 여성 대중 독자를 확보한 여성 잡지이다. 『신여성』의 독자들은 문자매체 수용과 참여 과정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대 초기 여성 독자들의 읽고 쓰는 과정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실체를 『신여성』의 독자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이러한 여성 독자들이 당대의 자기 위상 속에서 글쓰기 즉, 일기와 편지의 자기 독백이나 대화적 표현 등의 문체 형식을 통해 실현했던 여성 글쓰기의 또 다른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여성 글쓰기를 둘러싼 억압적 기제와 힘, 그리고 이를 균열시키는 여성 글쓰기의 전략이 여성 독자들의 위치에서 그 실체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신여성』의 독자와 문체

1) 고백체와 ‘감상성’의 정체

『신여성』은 다양한 기획을 통해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여성 독자들의 “万가지 顧問”⁹⁾을 들어주겠다는 편집진의 의도 속에서 독자들이 매체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였다. 우선, 독자후기인 『讀者와 記者』, 『會話室』, 『女人사론』 등을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 이에 대한 기자의 답변으로 독자들을 수용하는 방식이 있었다. 또한 『讀者論壇』 등에 일상 및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독자의 의견을 듣는 코너, 『讀者文藝』를 통해 독자들의 고백담이나 작품 감상, 수기와 시 등을 실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자후기는 독자들의 일상적 관심이 무엇인지, 『신여성』 등과 같은 여성 매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자들의 관심사와 근대적 인식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독자후기에 실린 독자들의 토막글 대부분이 고백체로 쓰인 점이다. 사실 고백체는 근대서사문학의 핵심적인 문체로서 고백을 통한 주체의 존재적 욕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다. 실제로 자기 고백체표현 방식인 서간문은 1920년대 『청춘』지 현상문예모집의 한 분야로 채택되는 등 근대 소설의 대표적인 양식이나 문체였다. 하지만 1920년대 근대 소설에 나타난 서간체는 주로 한 인물의 일방적인 독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서구의 서간체가 보여준 상호교신의 형식과는 다른 것이다.¹⁰⁾ 우리에게 독백은 상호의사소통의 의미보다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는 자신 중심적 표현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9) 『신여성』의 전신인 『부인』지는 <万가지 顧問部>를 설치하고 법률, 위생, 가정, 번민, 상식, 미용 등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인』 창간호, 1922.6, p.48. 참조.

10)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p.276~278.

한편 『신여성』 ‘독자후기’란에 나타난 독자들의 고백적 글쓰기는 기자와의 상호교신을 전제하면서도 독자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지면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신여성』과 같은 사회적 지면에 당대 여성 독자들이 그들의 일상적 내면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근대적 의사소통 매체, 즉 공적 글쓰기 영역에 여성 독자들이 일상적 내면을 드러내고자 할 때, 여성들이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고백체였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성 중심의 공적 글쓰기 영역에 주변적 존재, 소외된 존재인 여성들의 자기 표현이나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사실 고백체 글쓰기는 고전적인 여성 글쓰기에 자주 활용하는 문체이자 글쓰기 자질이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한글 해독 부녀자 계층을 중심으로 자기 고백적 편지 글쓰기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 때 서간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에게 안부를 묻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사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근대 우편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대적인 서간에는 ‘근대’ 또는 ‘국가’와 관련된 공적 담론이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게 된다. 공적 여론을 환기하는 글쓰기로서 편지가 활용되었던 것이다.¹¹⁾ 그런데 이러한 거대 담론 속의 서간문이 주로 개화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쓰기 방식이라면, 일반 독자나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의 일상과 내면을 매체 등에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서간체를 택하는 일이 많았다. 매체에 대한 이중의 인식, 즉 “함부로속업시짓거리서는 남자들에게 흉을 잡힐가념려”¹²⁾ 되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사정을 드러내고 싶은 여성 독자들의 표현 욕구가 서간체 속에 담겨있었던 것이다. 개화 지식인들의 편지와 여성 독자들의 서간체 글의 비교를 통해 당대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11) 이재봉, 「서간의 형식과 고백의 형식」,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p.141.

12) 『會話室』, 『신여성』 4권6호, 1926.6, p.49.

자기 고백적 서간체의 의미가 분명해 질 것이다.

① 이월 이십팔일 독립협회 회원들이 외부대신 서리 민중목씨에게 한 편지 사연을 좌에 기재하노라. 경계즈는 곳 드른 즉 절영도 싸에 아라샤 사름이 석탄고를 건축허려 허야 팔만 미들을 청구한다 하니 임의 빌너 주었는지 아즉 빌너주지 아니 하였는지 장츄 빌너주고져 허는지 만일 빌닐 경우에는 일본 사름에게 잠간 빌너 준 합동 조관을 의빙하여 허라는지 아라샤 사름의 쇼청디로 빌너 주는지 잠감민 빌너 주는지 영영 주는지 빌닐 쟈에 정부 회의를 지니고 허는지 외부에서든 홀노 결단허야 인을 썩는지 본회 회원들도 다 이 대한 신민인즉 이 일에 대허야 부득불 참례하여 물을 권이 잇기로 이에 앙포하니 조량한 후에 즉각 니로 곳 회답하라고 하였던디 이 편지 총디위원은 리상지, 정교, 조한우 삼씨로 회중에서 퍽덩하였더라.¹³⁾

② 『신여성』과 『어린이』에 재미있는글을만히 쓰시는 몽견초라는 분은 누구신지알고싶습니다. 더구나 지나간 가을특별호에났든 『수녀의설음』은 넓은 중에도 넘쳐지지만은조흔글이였습니다. 불상한혜숙의 편지는 그의 어머니나 형이아닌나까지울지안을수업썼습니다.¹⁴⁾

③ 겨우 몇해전에 보통학교를 맞춘친신덕이 여자이온데 신여성을 읽기시작한후부터 적지안은 지식과 유익을 어땀습니다. 늘고등보통학교에 못단이는 한을 하였더니 이제 그이상의 지식을 배운것가티마음이 든든하여¹⁵⁾

인용문 ①은 친러파 외부대신 민중목에게 독립협회 회원들이 보낸 편지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편지에는 절영도 땅을 아라샤의 석탄고로 빌려주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는 당시 열강들이 요구하던 조치지

13) 『독립신문』, 1898.3.1, 잡보.

14) 『讀者와 記者』, 『신여성』 3권1호, 1925.1, p.93.

15) 『女人사론』, 『신여성』 6권10호, 1932.10, p.91.

문제나 국가 영토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적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대신 민중목이 편지를 대필하여 외부(外部)의 공식적인 문건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사실¹⁶⁾ 등은 당시 편지의 공적 기능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인용문 ②와 ③은 『신여성』의 독자후기에 실린 여성 독자들의 짧은 서간체 글이다. 이 토막글에는 편지를 통해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일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1920년대 여성 독자들의 글쓰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소설 작가를 만나보고 싶다는 사적인 요구부터 유익한 기사에 대한 평가와 독후 감상 등 다양한 표현과 의견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취미로 볼만한 책을 소개해 달라거나 미인대회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소한 질문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적인 의견이나 질문들이 매체라는 공적 영역에서 특별한 여과없이 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대 서간체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일상적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상황적인 문체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 고백체는 여성들의 감성적 글쓰기를 표상하는 문체로 이해되기도 한다. 남성적 글쓰기, 즉 공적 영역에서의 서간문은 공공의 서사 내지 담론의 형식으로 이해되는 반면, 여성적 글쓰기에서 자기 고백적 서간은 감성적 글쓰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남성 필자들이 ‘조선 여자’와 ‘여학생’의 독서를 ‘센티멘탈리즘’으로 비판하고 ‘과학방면의 독서’를 권고하는 이유 또한 이와 관련된 것이다. “자기 완성의 발전”을 위해 “신구소설”이나 “혈가의 취미 독물”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나 여성들의 독서를 “생활에 대한 낭만적 기분과 센티멘탈리즘!을 반영하고 있는 것”¹⁷⁾이란 판단은 여성 독서에 대한 당대 남성적 시각을 그대

16) 『독립신문』, 1898.2.26, 잡보. 『독립신문』, 1898.3.1, 잡보. 『독립신문』, 1898.3.10, 잡보 등.

17) 微笑, 『女子와 讀書』, 『신여성』 6권9호, 1931.9, p.2.

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거대 담론 중심의 공적 영역에서 보면 독서는 근대 국가의 국민적 주체를 실현하는 교육 과정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서간체 등을 통해 보여주는 여성들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는 사변적이거나 ‘센티한’ 개인적 글쓰기의 한계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여성』에 나타난 여성 독자들의 글은 주변적 존재로서의 근대 경험을 재현하는 새로운 근대적 글쓰기를 하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 독자들의 자기 고백적 글쓰기에 나타난 감상성은 소외된 존재의 자기표현이나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근대적 언어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여성들의 자기서사¹⁸⁾는 공적인 서사가 물론 아니었다. 중세 여성들은 공적 세계와는 단절된 ‘사적인 존재’로서 외부는 엄격히 분리된 가족내적 존재의 표현이었다. 반면 근대적 여성은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고 학교 교육과 근대적 출판문화 등으로 공적인 글쓰기의 주체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동등한 주체적 글쓰기를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은 존재 방식 등의 차이에 따른 자기서사의 구성방식이 다른 사회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고전적인 여성 글쓰기의 자질인 자기고백적인 문체를 통해 자기 내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글쓰기를 한다. 이 때 고백은 주변적 존재인 여성들의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백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여성들의 자기서사적 표현들은 남성들과는 다른 정치, 사회, 역사적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내면 서사이며 언어적 소통 방식인 것이다. 그것은 곧 감정과 생각

18)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사전적으로 ‘자기서사’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나 감정의 상태에 대한 기술보다 자신의 일생이나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의 성격을 내포한 것이다.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여성문학회, 2002, p.10. 참조

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새로운 근대적 글쓰기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구성하는 자기서사는 대부분 일상적인 경험을 재현하는 것으로, 센티멘탈하지만 근대적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주변적 존재였던 여성이 자기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근대적인 표현방식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작년 정월 초하룻날 당신은 이런 편지를 쓰셨지요 ‘이날이 되니 S의 생각이 더욱 납니다.’ 벌써 오랫동안 보지 못한 당신의 얼굴과 옛날에 무슨 옷을 입으셨든 것 말을 하다가는 쑥 쓴코 나를 마조보고 싱긋 웃든 것 이런 것을 못치지 말고 차차보려고 애씁니다...있다금 튀어 나오는 추억의 조각 조각은 나 혼자 빛아 담당하기에 넘우도 씩직한 이품을 줍니다... 이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을 나는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실 때 나는 얼마나 어렸습니까. 나이로는 크다란 처녀가 되었지만 그저붓그러워서 말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쓸먹은 병어리처럼 생글생글하면서 당신의 눈치만 보고 잊었어요...인제야 당싯 압해서 한바탕 연설이라도 못할까요. 그동안 저는 이만큼 숙성한 녀인이 되었습니니다.¹⁹⁾

② S언니! 지금은 밤입니다. 청송구진 우우새 우름이 으스름달밤을 올리우고 있습니다. 잠을자겠다 고자리에 누웠으나 기다리는 고요한잠은 차자와 주지를 안습니다. S! 언니는 언젠가 시골의 로메오와 유리아의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사랑하는이의 손을 붓잡고 고개고개를 헤메며단이든 그들이 부럽습니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물욕을 모다 이저버리고 팔에팔을 붓잡고 노래하며 새우는 봄밤! S언니! 참말이어요. 사람이 그림이어요 언니가그림이어요 맘껏 부둥켜안고 숨막히는키스를 하고십혀요 언니! 언니는 지금 무엇을하고계실까요²⁰⁾

19) 이옥녀, 『옥녀의 가느단 所望』, 『신여성』 8권 1호, 1934.1, p.57.

20) 김순영, 『언니저달나라로-思春期少女의心境-』, 『신여성』 7권6호, 1933.6, p.54.

센티멘탈한 분위기가 가득한 두 편의 편지글이다. 글 ①은 ‘숙성한 녀인’인 된 여성이 어린 시절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애정의 편지이다. 글 ②는 열여섯 여학생 시절에 좋아했던 ‘S언니’를 추억하며 쓴 애상에 젖은 편지글이다. 두 편은 모두 개인 간의 의사소통 수단인 1인칭 고백체의 글로서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에서 숙녀가 된 여성 발신자는 연인을 향한 애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또한 ②에서는 그리움에 대한 발신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직접성에는 근대적 여성 발화자의 자기서사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다. 20년대에 유행한 자유연애열의 강도를 보여주는 이 발화는 여성 발화자의 내면적 열정이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주변적 인물인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 즉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에 여성들의 내면적 언어가 등장한 것이며 당연히 여성 독자들의 서간문은 사적인 담론영역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물론 공적 영역인 인쇄매체에 사적인 서간문이 실리는 순간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²¹⁾

한편 서간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공간적 거리감이 최소화되고 소통의 실감을 부여함으로써 내밀한 공감을 형성한다. 특히 여성들의 내면에서 감정적으로 발신되는 서간문은 상호 공감대를 훨씬 극대화한다. 위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간문의 구어 문체는 발신자의 감정과 목소리를 강화시켜 발신 현장의 감각을 수신자에게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이 때 서간문은 내면을 전달하는 방식이자 내면을 전제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공적 차원에서의 관계를 훨씬 직접화하거나 구체화한다. 여성적 글쓰기 자질로서의 서간이 근대적 글쓰기의 의사소통 충위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이다.

21) 신지연,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출판, 2007, p.284. 참조

한편 고백의 장르 중 특정 독자나 불특정 다수를 수신자로 하는 서간과 달리 일기는 자기를 독자로 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다. 하지만 위의 서간문이 그런 것처럼 인쇄활자를 통해 표현된 여성들의 일기 형식은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의 글쓰기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매체에서의 일기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역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매우 특이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은 이러한 일기 형식을 통해 새로운 표현 방식을 보여준다. 이 때 일기의 자기 고백적인 문체 또한 남성 필자들에게 여성적 감상성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의 하나로 이해된다. 하지만 매체에 실린 일기 형식의 글쓰기는 지나친 감성의 노출이라기보다 일기의 특징인 자기 성찰의 과정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공적 영역으로 지상화 하는 독특한 근대적 글쓰기의 하나라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① 죽은 애인을 위하여 나는 사후의 생존을 밋으려한다. 서구 어떤 시인은 애인을 죽여버리고 마음의 괴로움에 생활의 심화를 부르짖었다. ... K는 생활을 엄연히 생각하고 짜고 힘으로 이 인생을 살려고 하였다. K는 가난한 가운데 데이트하면서도 거짓말을 못하였고 남을 속이지 못한 사람이었다. ... 내세에 삶이 있다면 K는 幸福히 살 것이다. 이 現實에서 너머도 착하였다. ... K는 가난과 싸와가며 살다가 肺에 病이 드렸다. ... 내생활을 돌보고 남의 생활을 抱擁하든 김흔 思慮의 生活을 現實人은 가지지 못하였다. '톨스토이'는 이 現實우에 신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미뎠다. '토스토예프스키'는 이 人間우에 사랑의 救濟가 가능하다고 미뎠다. 그러나 착한 K는 제손으로 제목숨을 끈지 안어서는 아니될 運命을 비저내었다²²⁾

② 憂鬱한 도시의 가을밤이었다. 집 뜰에선 오동나무에는 달빛과 전등빛이 빛치여지는 넝의 모양이 희미하게 보인다. 바람이 지날 때마다 나무가 흔들리고 달님넝은 한뼉두뼉 썰러진다. 푹푹 푹푹 지는 넝의 모양은 불평도 없다. ...

22) 류도순, 「죽은 벗」, 『신여성』 7권1호, 1933.1, p.104.

자살한 벗이 생각한다. 가을은 적막하다. 인생도 적막하다. 인생의 과거를 추억하는 그 純情,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²³⁾

자기 성찰은 근대 경험 내지 근대적 담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성찰이다. 위의 글 ①의 경우, 필자는 개인적으로 연인 관계에 있는 ‘K’의 죽음 이후 그의 삶을 추억하면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존재론’을 떠올린다. K의 모범적 삶을 반추하면서 근대적 존재론과 도덕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글 ②는 고적한 도시의 가을밤을 애잔하게 그리고 있는 글이다. 감상이 주조를 이루는 글인데, 가을 밤 풍경 속에는 근대적 이미지가 담겨 있다. 오동나무 달빛과 전등 빛이 클로즈업 된 20년대의 독특한 도시 이미지는 친구의 자살을 기억함으로써 데카당스적인 분위기로 연결되어 있다. 근대 도시와 데카당스는 이미 20년대 동인지 문단의 주요한 문학적 표상이라는 점에서 근대 문학의 표정이라 할 수 있다. 『신여성』 여성 독자의 일기 글에서 이러한 근대적 사유가 확인된다는 것은 당대 여성 독자들이 이미 근대 주체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 글쓰기에서 일기는 자기 성찰을 통해 실현하는 근대적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정제되지 않은 일상적 감정이나 감상적 이미지가 단순히 근대적 글쓰기로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일상 속에 내재된 여성들의 자기 형성과정, 즉 주체 형성과정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타자로서의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고백체 글쓰기의 감성적 표현과 불규칙한 직접적 토로 등은 근대의 남성적 담론 글쓰기의 이성적 논리를 균열하거나 다양화시키는 전략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신여성』을 비롯한 1920년대 여성 글쓰기, 특히 매체의 여성 독자

23) 류도순, 『短簫』, 위의 책, p.106.

들이 보여준 자기 고백체 글쓰기는 한국 근대 문화 형성 과정에서 매체에 의해 유포되던 문화적 표상에 대응하는 일차적인 글쓰기이다. 또한 근대 문화의 토대 위에 여성들이 처한 특수한 조건은 근대 주체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상적 글쓰기가 된다. 따라서 ‘감상성’으로 상징되던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성적 자질로서의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근대 주체의 내면을 형성하는 과정을 일상 속에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언문일치와 여성 독자

개인의 감정과 내면 표현이 공적인 가치 영역으로 공론화되기 이전, 구체적으로 1915년 이전에 문학이라는 말이 광범위한 글쓰기 일반을 통칭할 때,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전히 경계와 규범 속에 놓여 있었다. 여자를 ‘규문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존재’로 규정하는 고전적 질서와 그 당위로서의 편지 쓰기는 여전히 여성 글쓰기에 대한 강고한 이해였다. 특히 서간 특유의 구식 문장투는 여성 글쓰기를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 두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식 문장투를 일상어투로 대체하는 일은 근대 서간양식의 중요한 특징이자 여성 글쓰기의 근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문투의 수식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일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체 교정을 넘어 중국 중심의 인식 체계를 수정함으로써 민족의 재발견이라는 보다 큰 명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일상어를 공식적인 문자 언어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문자언어에서 소외된 이들이 문자언어권 내부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근대성은 여성들이 공적인 글쓰기에 참여하는 통로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서간양식의 일상어 사용은 곧 언문일치체 문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상적인 언문일치체 문장으로 사회적 소통방식이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서간이 문어체에 충실했다면, 내용과 표현상 논리, 감정을 통합하는 근대 서간은 한문 상투어구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내용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일상적인 구어체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당시 신문 광고에도 “구식 한문에 기우러지는 괴벽한 서한문의 결점을 제하고 유창 간명한 언문일치체로 맨긴 신(新) 서한문 겸 신작문집”²⁵⁾을 소개하는 글이 실린 정도이고 보면, 언문일치체 서간에 대한 당시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서간문에서 언문일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구어의 재현이라는 점에 있다. ‘언문일치’는 말과 글의 일치라는 뜻에서 글의 청각언어와 일상의 실제 구어의 일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언문일치를 위해서는 일상의 언어 곧 소리에 대응하는 문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한자와 같이 그 자체로 우리말의 음성적 요소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 언문일치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신여성』에서 확인되는 여성 독자들의 서간은 구어, 특히 일상적 언어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① 귀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그 한책에 매월 한 항씩 만 빌려서 매월 작품을 발표해 볼 까하는데 그러케 하려면 귀사와 어 썬한 관계를 매져야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동래 김소순) 신여성독자문에는 글의 길고 짜른 것을 꼭 모집광고에 지정한 대로 하야만됨닛가혹 다소 짧거나 길으면 뽁뽁닛가 좀 알려주십시오(全州 一投稿生)²⁶⁾

② 은파리를 쓰시는 이는 엇던분이신지요. 넓을 때마다 참을수업시우수운

24)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 연구(1)」, 『민족문화사연구』 39집, 2009, p.78.

25)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과 미문, 이태준의 미문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24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4, pp.40~41. 재인용.

26) 「會話室」, 『신여성』 4권7호, 1926.7, p.33.

중에 은연히 유익한 것도 만히 잇슴을 깨닫습니다(大邱 三白草) 남편업는 여자이오며 금년 스물네살이고 보통학교 삼학년정도의 식견을 가진녀자가 잇는데 그런이가 보아서 취미를 붓칠만한 책이름과 판매소이름 급 값을 줄아르켜(강홍남)

③ 돈이업서 학교에 못가게되니 이를 잊지면춧습니까(沙里院 H生)²⁷⁾

서간은 본질적으로 문어체와 구어체의 중간 형태라는 문장 특징을 지닌다. 즉 말과 글의 중간 형태이다. 그러므로 서간에서의 언문일치란 일상적 구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적 재현을 일컫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간이 구어를 재현하는 언어 텍스트로서 근대적 글쓰기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문 상투어의 규범에서 벗어나 일상적 구어를 재현하는 서간은 봉건적 규범으로부터 내용과 형식의 자유를 실현하는 근대적 글쓰기였던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어에 내재된 일상을 재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표현의 근대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위 글 ① ② ③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구어체 속에는 일상의 사소한 질문과 감정, 생활의 미시적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것은 언문일치가 언어와 표현대상의 관계, 즉 문자 텍스트와 비언어 텍스트인 현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자 텍스트가 비언어적 현실의 역동성과 전체성을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까? 이에 따라 문자 텍스트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²⁸⁾에서 서간은 상대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글쓰기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서간이 현실의 전체상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사회적 전형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간은 일상어로서 구어적 상황을 어떤 글쓰기 양식보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7) 『女人 사론』, 『신여성』 5권10호, 1931.11, p.86.

28) 류준필, 『구어의 재현과 언문일치』, 『문화과학』 33호, 문화과학사, 2003.3, p.164. 참조.

위의 글 ① ②에서 여성 독자들은 근대적 여성지인 『신여성』에 다양한 관심과 투고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①의 필자는 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여성 독자인데, 근대문예에 여성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당대의 신여성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필자와 비슷한 당대의 여성 독자들의 시대적 관심이 근대문예에 대한 일상적 욕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신여성』등에 여성으로서 글을 투고하고자 하는 근대적 욕망과 인식체계가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 ②는 일반 여성 독자로서 독자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특히 자신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새로운 책과 판매소 등을 묻고 있는 이 여성 독자의 목소리는 구어적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속에는 사회적 신분, 학력, 여성으로서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으로서 새로운 독서를 하고자 하는 열망과 실천적 관심 등을 구어체로 제시하고 있다. 글 ③은 그 자체가 구어적 상황으로 돈이 없어 학교를 못가는 사정을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체에 실린 여성 독자들의 서간은 구어적 상황이나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을 그대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문일치를 통한 언어와 현실의 일치라는 ‘문체의 근대성’이 근대의 여성 서간문에 이미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언문일치의 실현은 근대 초기 국어국문운동의 핵심으로서 일반 민중들이 스스로 자기 언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주변적 존재였던 여성들은 고전적인 글쓰기에서부터 이미 언문일치에 가까운 글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한문이나 한자 세계 중심의 공적 언어로부터 유리된 여성이 일상적 말과 공적 언어 사이에서 미묘한 자기 표현 방식을 실현했던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구어적 발화 상황을 재현하는 문장들, 즉 언문일치는 한자 혹은 한문 글쓰기와 구별됨으로써 여성들이 근대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글쓰기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언문일치는 여성 글쓰기의 주요한 문체이자 구어의 재현 장치가 된 것이다. 그것은 곧 공적 언어로부터 소외된 언어 국외자들이 자신의 음성적 실현 순서에 따라 글을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당연히 한자로서는 그 재현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국문표기만을 가지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조선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라” 할 때, 조선 국문의 강조는 ‘국문’이 가진 매체의 실용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문일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국문 사용을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음성의 재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실 발화의 재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어적 발화 상황을 재현하고자 할 때, 발화 상황이나 맥락을 함께 표시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발화주체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언어의 차원에서 직접 인용의 형태로 발화를 재현하는 것과 재현된 발화를 재현이 아닌 발화와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²⁹⁾ 순수하게 음성만을 재현할 때 발화 주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 글쓰기 또한 발화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 글쓰기, 특히 여성 독자들의 일상적인 글쓰기의 경우에는 그 문체나 어투에서 발화 주체의 성향과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여성 독자들의 감정적인 어투와 직접적인 언어 표현, 생활상과 관련된 주제 등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신여성』의 ‘독자후기’나 ‘독자문예’ 등에서 이러한 독자들의 직접적인 구어적 발화 상

29) 류준필, 위의 글, p.170.

황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틈만 잇스면 본지를 손에 쥐고 동무삼”고 “한번읽고 두 번읽고 또다시 몇번읽어도 읽기싫치” 않는 『신여성』의 위상과도 관련되지만, “적막한 시골”의 아낙이나 여학생, “가난하고 교양업는 시골의 처녀”에 이르기까지 『會話室』이나 『女人사론』을 통해 진솔하게 ‘자기 고백’ 혹은 ‘시시콜콜함’까지 이야기하는 여성 독자들의 발화 태도와도 관련된다.

음성만을 재현할 때 나타나는 발화 주체의 불명확성은 바로 이러한 구어적 발화 상황의 구체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명료화된다. 그것은 여성 독자들의 ‘소박하고 하찮은’ 일상의 글쓰기가 발화 주체로서 자신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독자들의 주체적 발화 방식이 자기 고백적이란 점에서 구어적 상황의 직접적인 전달이 더욱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신여성』의 『會話室』에는 이러한 발화 주체들의 처지와 상황이 일상적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① 고요한 시골마을에도 풍부한 녀름이 차저왔습니다. 우리시골의 들뜬에 비만진모썸이 세로푸른빛을 띄고있습니다. 나는 달달이 충실하여가는 『신여성』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한 동무도 신녀동독자가 되겠다고 함으로 나는 동무가 붙어서 미뭉과 깃뭉이 더욱갑혀짐을 금할 수가 업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만흔동무에게 권하라합니다.(함평 지정 生)

② 나무마다 푸른 그늘이 육어저웁니다. 얼마나 즐거운녀름칠입닛가. 편집실의 여러 선생님! 아아 매우 밝븐시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녀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줄압니다. 저는 금년사월부터 신녀성독자가 되었는데 참으로 참으로 유익하게 매우러웁으며 다음호의 나오기를 항상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모썸록 어린 저의들을 잘지도하여주소서(대구 권원 生)

③ 저는 시골한무식 쟁이부인입니다. 서울가서 공부하는 족하가 달달이 신

여성잡지를 보내주나 별로읽을틈도없고 쏘는 읽어도 의미를 잘 알수 업는 기사가 만허서 항상 두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정에서 읽을 것』이라는 세가지 기사는 아조 자미나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³⁰⁾

위의 서간들은 대구, 함평 등지에서 보낸 지역 여성들의 글이다. 특히 글 ③에서 시골 ‘무식쟁이’ 부인이라 스스로를 칭한 여성 독자의 글은 여성 독자의 지역적 상황과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여성』에 실린 대부분의 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정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가사 관련 글이 그나마 재미있었다는 내용은 가정주부로서 사회적 담론과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독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글 ① ②는 여성 독자로서 잡지에 대한 감사의 글과 함께 일상의 풍경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여성들이 『신여성』과 같은 근대적 매체의 독자로 성장해 가는 일상적 과정의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독자들의 서간에서 확인되는 구어적 상황과 맥락은 언문일치라는 언어 제도 이전부터 일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은 발화의 상황과 주체성을 구체적인 상황 제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물론 여성 독자들의 서간체 글에서 확인되는 언문일치의 표현이 소설 등의 본격적인 문예 작품 속의 언문일치와는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다. 소설과 같은 서사 구조 속에서 구어를 재현할 경우, 그 발화주체의 표지와 구분은 당대의 언문일치 기획에서 여전히 문체의 지점이었다. 하지만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서간체 등 일상적 고백체의 글은 소설, 혹은 근대적 서사 이전에 일상에서 실현되는 글쓰기 양식이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서간이 근대적 글쓰기의 중요한 문종(文種)으로서의 서간으로 전이되는 과정은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 속에서 새롭게 살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곧 여성 독자가 문학적 주체 혹은 근대

30) 『會話室』, 『신여성』 4권8호, 1926.8.

적 글쓰기의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곧 언문일치체의 정착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대적 서간 양식의 내적 논리에서 언문일치가 하나의 제도적 언어 권력으로서 외부에서 강제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의 지점이다.³¹⁾ 그런 의미에서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언문일치는 외부적 강제나 언어적 권력 이전의 일상 속에서 태어난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여성 글쓰기의 자질로서 서간이 당대 여성 독자들의 근대적 표현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며, 언문일치는 그것을 실현하는 문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독자들의 언문일치체가 공적인 매체 속에 등장한 것은 언문일치라는 보편적 요구나 제도에 앞선 여성들의 자율적 글쓰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근대 초기 글쓰기 양식들의 다양성이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역동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여성 글쓰기의 초기 형태는 일상적 발화 지점에서 여과없이 표출된 구어적 목소리의 글쓰기였던 것이다. 이를 자발적인 언문일치체의 구현이라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결론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은 근대적 매체의 등장과 함께 근대적 글쓰기의 주체로 성장한 여성들이다. 물론 이들은 근대적 교육이나 제도, 문화적 조건 위에서 등장한 이들이지만 그들의 글쓰기는 근대적 글쓰기 양식의 헤게모니 외부에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 글쓰기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역동성이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는 과정의 외부, 즉 일상과 지역, 생활 공간에서 직접적인 자기 고백과 구어를 통해 실현된 글쓰기였기 때문

31) 김성수, 앞의 글, p.80.

이다. 이러한 여성 독자들의 글쓰기 특징은 그들이 주로 사용한 문체(Styl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독자들의 대표적인 글쓰기 표현 방식인 일인칭의 자기 고백체는 근대문학 형성과 관련하여 근대적 개인의 생활과 내밀한 경험 등을 드러내는 주요한 형식이자 수단이었다. 여성의 고백적 글쓰기는 근대적 여성의 주체적 표현으로서 그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여성들의 읽기와 쓰기를 ‘과도한 감상성’이나 ‘문학소녀’적 취미쯤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당대의 시선에 대항하면서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적극성을 통해 젠더라는 불가시적인 억압적 기제를 벗어나는 여성적 글쓰기의 주요 방식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고백체는 남성 중심의 공적 글쓰기 영역에 주변적 존재, 소외된 존재인 여성들의 자기 표현이나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한편 서간체를 사변적이거나 ‘센티한’ 개인적 글쓰기의 한계로 지적하는 당대의 이해는 소외된 존재의 자기표현이나 비주류적 경험의 재현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적 언어 미학을 남성적 시선에서 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상성’으로 상징되던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성적 자질로서의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근대 주체의 내면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대 초기 글쓰기 양식에서 ‘말하기’의 문자화 과정은 주요한 문장 언어 창출의 중요한 기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서간 양식의 글, 특히 여성들의 서간 양식은 근대적 언문일치체의 구현이라는 시대 과제와 관련하여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구식 문장투를 일상어투로 대체하는 일은 근대 서간양식의 중요한 특징이자 여성 글쓰기의 근대성을 확보하는 과제였다. 특히 여성들의 서간문에서 언문일치는 일상적 구어의 재현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여성 독자들의 감정적인 어투와 직접적인 언어 표현, 생활상과 관련된 주제 등을 통해 나타난 일상적 맥락은 발화 주체의 구체성을 확보한

다는 의미에서 근대 언문일치의 음성적 실체를 확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여성』의 여성 독자들이 보여준 언문일치는 외부의 제도적 강제나 언어적 권력 이전의 일상적인 여성 글쓰기의 문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독립신문』, 『신여성』

2. 논문

김민숙, 『신여성과독자』, 『겨레어문학』 34집, 겨레어문학회, 2005, pp.263~264.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하나의문화, 1992, p.119.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 연구(1)』, 『민족문학사연구』 39집, 2009, p.78.

류준필, 『구어의 재현과 언문일치』, 『문화과학』 33호, 문화과학사, 2003.3, p.164.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집, 한국여성문학회, 2002, p.10.

이봉지, 『엘렌 식수와 여성적 글쓰기』, 『세계의 문학』, 1999, 겨울호, p.243.

이재봉, 『서간의 형식과 고백의 형식』,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p.141.

3. 단행본

신지연, 『글쓰기라는 거울』, 소명출판, 2007, p.28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p.46.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p.276~278.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1, p.103.

데보라 카메론, 이기우 역, 『페미니즘과 언어이론』, 한국문화사, 1995, p.61.

Abstract

The study of female readers of 『New Women』 Magazine and
women writing type

Park, Seung-Hee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modern writings by female readers of 『New Women』 Magazine during the 1920s. These women were those who appeared as the subjects of modern writings along with the appearance of modern media. They attempted writing through direct confession and oral speech in their ordinary lives and loca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s by such female readers are confirmed by styles they mainly used.

The first was a writing type that overcame the invisible suppressive mechanism, namely, gender, through the activeness of self-confessional writing. The confessional style was their self-expressions as marginal beings or isolated beings in the area of male-oriented public writing, and was a way of realizing the possibility of reviving their experience and expression as outsiders.

Second was to replace old-style sentences with an ordinary way of speaking; this wa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letter style and was a task to ensure modernity in women's writings. The ordinary contexts revealed through the female readers' sensible way of speaking and direct dialogu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sense of securing the concreteness of a speaker.

Key-words : 『New Women』, female readers, woman style, public writing,
direct dialogue, letter style

박승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810-2127, 011-815-8749

전자우편 : bround33@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14일 게재 확정됨.